

지역 소식통

정읍시, 2022년 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 받아

정읍시가 제28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할 2022년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정읍시민의 장은 '정읍시민의 장 조례'에 의거 매년 심사 선발해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정읍시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시는 정읍의 명예를 대내·외에 알리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수상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을 선발해 그간의 노고를 알리고 정읍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상 분야는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 △명예시민의 장 △농업장으로 총 9개 부문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벼 출수기 이후 병충해 방제 철저 당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에서는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출수를 마친 벼 중만생종에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분담 2차 기본 방제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8월 말까지 전직원이 현장지도에 민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삭도열병은 벼 이삭의 목부분이 열은 갈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변하여 말라 죽으며 벼알이 여물지 않아 적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쌀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필지당 이삭이 2~3개 보일 때 전용 약제로 1차 방제를 하고 5~7일 후에 2차 방제를 하면 된다.

잎집무늬마름병은 질소비료 과용과 밀과 등으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발병이 심해져 잎에서부터 이삭으로 확산될 수 있고, 세균벼알마름병은 발생 초기 벼 이삭의 이삭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다가 생장을 멈추면서 여물지 못한 채 쭉정이 되어 많은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부안=김석진 기자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

정읍시, 무주택 독립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정읍시가 22일부터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이들 돌보는데 어려움 없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

심덕섭 고창군수,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담회 마련... 활성화 방안 논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고물가 상황이 아이들에게 전가돼선 안된다”며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가 군수실에서 고창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창군 7개 지역아동센터에선 200여명의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학습지원 등을 하고 있다. 군은 운영비·인건비·프로그램비 등에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고물가 상황이 아이들에게 전가돼선 안된다”며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물가 인상에 따른 아동 간식비, 센터 차량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돌봄교사의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아이들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센터장과 돌봄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첫 벼베기 현장 일손돕기 구슬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9일 올해 첫 벼베기가 진행된 부안군 동진면 동진리 벼 수확 현장을 찾아 일손을 돕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에 나섰다.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한 농가는 동진면 장신리 유병결씨(61) 농가로 조생종인 '진육벼'를 수확했다.

유병결씨는 올해 벼 재배면적 18.3ha 중 2ha 농지에 진육벼를 심었으며 수확물 전량을 지역 RPC에 출하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벼 수확현장을 방문해 농가를 격려하고 콤바인을 직접 몰며 일손을 돕는 등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올해 육묘기와 모내기 시기인 지난 4월 상순부터 5월 중순까지 기상이 양호했고 장마, 태풍 등 벼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재해가 없어 쌀 생산량이 평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현 군수는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벼 수확이 아무 말 없이 잘 이루어져 모든 농민들이 풍년을 맞보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가을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에 주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지난 18일 제8회 쌀의날을 맞아 고창군수도연구회원과 농관련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의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맛있고 품질좋은 고창쌀”

고창군, 쌀의날 기념 행사

고창군이 지난 18일 제8회 쌀의날을 맞아 고창군수도연구회원과 농관련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의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쌀의날(매년 8월18일)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기념일이다.

쌀 수확을 위해서는 여든 여덟(八十八)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8월18일을 정했다.

고창군에서는 처음으로 고창군수도연구회원과 고창군이 함께 쌀의 중요성을 알리는 취지가 행사가 이뤄졌다.

고창쌀로 만든 떡케이크, 찰떡을 비롯해 고창에서 재배된 쌀 500kg을 고창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기부하며 쌀의 가치와 고창쌀을 홍보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쌀 소비 감소·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고창 쌀의 명품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단풍미인 쌀' 미국 수출 우수성 알려

정읍지역 대표 브랜드 쌀인 단풍미인 쌀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시는 지난 19일 영일 RFC에서 단풍미인 쌀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해외시장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은 쌀 소비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RFC에 보관 중인 조곡의 판로가 막혀 2022년산 조곡 매입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읍시와 정읍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이날 단풍미인 쌀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해외시장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상차식에는 농업기술센터 전정기 소장과 황보현·샘골·신대인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단풍미인 쌀 재배 농가와 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상차식을 통해 정읍의 고품질 쌀을 미국으로 수출해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고국의 맛있는 밥맛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하는 단풍미인 쌀은 20톤 4천5백만원 규모다. 미국 내 로스엔젤레스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뉴욕에 10톤을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풍미인 쌀 수출은 쌀 소비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해진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단풍미인 쌀의 이미지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